

순천 신대지구 '코스트코' 입점 논란

〈외국계 대형마트〉

지역상인·시의회·시민단체 "골목상권 위협" 반발 상가번영회·아파트 입주자 "상품 싸게 구입" 환영

순천 신대지구에 외국계 대형 마트인 '코스트코'(costco) 입점이 추진되면서 입주를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입장이 상반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순천시에 따르면 코스트코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내 신대지구에 입점을 위해 부지매입 등에 나서자 지역상인들과 시의회 등을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코스트코 코리아는 올해 초부터 410억 원을 투자해 순천 신대지구에 부지(2만7388㎡) 매입에 나서서 한

편 시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신대지구 개발시행사 등과 인·허가 문제 등을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역의 기존 상권 위축 등을 우려해 순천 상인연합회와 순천 YMCA, 광양 참여연대 등 순천과 광양 18개 단체는 28일 공동으로 코스트코 입점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순천시에 이미 출점한 대형 할인매장은 6개, 전문가들이 제시한 12만명당 1개

의 기준을 이미 초과한 상태"라며 "코스트코 입점은 골목상권과 중소기업, 재래시장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가칭) 신대지구 상가번영회와 아파트 입주자 및 입주 예정자들은 입점을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사회단체와 일부 시민들도 지역상권 위축을 우려하는 반면에 시민들이 저렴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아파트 입주자 박모(39)씨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코스트코 입점을 환영한다"며 "상가주민보다는 대다수 순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소속 신화철 의원과 김석익 의원은 "신대지구에 상가를 분양

받은 상인들이 코스트코의 입점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라며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코스트코의 입점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와 개발시행사는 코스트코에 부지를 매각하지 말고 광양경제청도 건축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앞서 순천시는 신대지구에 대기업 유통업체 진출을 막기 위해 농협이나 원협, 지역의 마트 등을 대상으로 입점 의사를 타진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시 관계자는 "건축허가권 가진 광양경제청 등과 논의해 기존 지역상권이 위축되지 않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에 국내 최초 '그림책 미술관' 문 연다

25억 들여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2014년 개관

순천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그림책 원화(原畵)를 전시하는 '그림책 미술관'이 문을 연다.

순천시는 "지난 1980년도에 개관한 중앙 도서관을 대한민국 제1호 그림책 미술관으로 리모델링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25억 원을 투입해 부지 5300㎡, 건물면적 2200㎡ 규모의 현 중앙도서관에 대해 내년 3월부터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 오는 2014년 초 완공할 예정이다.

주요시설로는 전시실과 그리기 체험공간, 공연장을 비롯해 창작방, 아카데미룸, 수장고 등을 갖춰 대한민국 제1호 그림책 미술관으로 개관할 계획이다. 중앙도서관은 3대 7의 개념으로 기본적으로 도서관 기능을 유지하면서 '그림책 미술관'을 운영하게 된다.

'그림책 미술'은 어린이 등이 즐



겨 찾는 그림책의 그림 원화를 지칭하는 것으로, 인근 일본에는 전문 미술관이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한곳도 없다.

이번 그림책 미술관 건립은 최근 일본 나가노현에 있는 '치히로 미술관<사진>'을 견학한 조흥춘 순천시장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순천시 관계자는 "글이 없는 그

림책 전시는 그림만 감상하기 때문에 상상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어 전시회가 열리면 많은 부모와 아이들이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림책 미술관 건립은 미술관 관람 문화 수준을 끌어올리고 순천을 문화도시로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kwangju.co.kr

공공기관 청렴도

구례 교육청 1위

구례 교육지원청(교육장 김 중구)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155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외부 청렴도 부문 전국 1위를 차지했다.

구례 교육지원청이 받은 평가 점수는 9.0으로 전국 평균 점수인 7.82점보다 1.18점이 높고, 전국 550여 공공기관 중 제일 높은 점수이다.

구례교육청은 지난 1년간 청렴도 향상을 위해 '친절과 봉사가 바로 청렴이다'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직원 개인별 청렴도 평가는 물론 교육장 업무추진비 매월 공개, 청렴도 제고를 위한 의식교육 등을 매일 실시해 왔다.

김중구 교육장은 "내년에는 종합 청렴도 1위를 목표로 모든 업무에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례 교육지원청은 지난해 청렴도 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은바 있다.

구례=이진택기자 ik5826@kwangju.co.kr



영해기점 조형물 제막

김충석(왼쪽에서 4번째) 여수시장과 국립해양조사원 관계자들이 28일 여수 삼산면 거문도등대 입구에서 영해기점(해양영토 측량 시작점) 상징 조형물을 제막하고 있다. 영해기점 조형물은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등 우리나라 해양영토를 측량할 때 기준점이다.

여수시 제공

여수 금오도에 연안방재 관측시스템

어선 안전운항·사고 방지 도움

여수 남면 금오도에 해양기후변화 등 해양의 정보를 실시간 파악해 전달해주는 '연안방재관측시스템'이 들어섰다.

이번에 구축된 연안방재 관측시스템은 급격한 해양기후변화 등에 의한 인적·물적 연안재해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여수시가 지난 4월 부산에서 열린 제 4차 JCOMM(해양학 및

해양기상 합동기술위원회) 총회 국내 조차위 6차 회의에서 기상청에 건의함으로써 마련됐다.

이번에 구축된 연안 방재 관측시스템은 ▲0.5초 주기 측정 수위계 ▲1분 주기 측정 기상센서(기압계, 풍향·풍속계) ▲해역의 해상상태를 실시간으로 표출하는 모니터링 CCTV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 장비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기상청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해 너울

과 이상 파랑 등 위험 수준 시 사용자들에게 SNS를 통해 안전·관심·주의·경보 등 4단계로 통보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거문도 해상에 설치된 해양관측기 부이(BUOY)와 함께 남면 금오도 두포리에 연안 방재 관측시스템 감시체계 구축으로 남면을 지나는 내·외선박과 어선의 안전운항과 이상파랑에 의한 수난사고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여수=임문택기자 mtlim@kwangju.co.kr

여수 청소대행업무 도시공사 이관

내년부터... 환경미화원 경력직 모집

청소대행업 위탁 특혜논란을 빚었던 여수시 청소대행업무가 내년 1월 1일부터 도시공사로 이관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환경미화원 경력직 공개모집에 나섰다.

여수시는 "이번 환경미화원 경력직 모집은 대부분의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이 도시공사로 가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을 채용하기 위한 모집공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수시 도시공사는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원서를 접수해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18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청소대행업체 4곳 중 1곳만이 시의 도시공사로의 이관을 수용했을 뿐 나머지 3곳은 "그동안 시설 등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위탁 계약을 취소 회사가 큰 재정적 손실을 입었다"며 반발, 최근 광주지법에 위탁 해지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는 "위탁계약 종료에

대해 법적 문제도 전혀 없고 청소업체 대표자 간담회, 실무자 간담회 등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청소업체의 비협조로 청소대행업무의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여수시도시공사가 원활한 청소업무 추진을 위해 이번 환경미화원 공개채용에 나섰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미화원 경력직 모집의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도시공사 홈페이지(www.yuc.or.kr)와 여수시 홈페이지(www.yeosu.go.kr)를 참고하면 된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kwangju.co.kr

곡성군-고흥군, 공동발전 손 잡다

행정·관광·문화 업무협약

곡성군과 고흥군이 공동발전을 위해 손을 잡았다.

허남석 곡성군수와 박병중 고흥군수는 지난 27일 곡성군청에서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 도시간의 공동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

다.

이날 협약을 통해 양 군은 ▲역사적·문화적 전통 상호존중 및 번영과 공동발전 ▲행정·관광·문화 등 분야에서 인적·물적 교류 ▲화합과 우의 도모 등 주민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박병중 군수는 "상호 지원과 협조

를 통해 많은 것을 공유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협력점을 찾아 상생발전을 이루고, 양 지역의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허남석 군수는 "양 지역이 새로운 소통의 통로를 열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행정, 관광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자"고 강조했다.

곡성=김계종기자 kjkim@kwangju.co.kr
고흥=주각중기자 gjju@kwangju.co.kr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 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이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입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ENG, 이앤지 방수 비누제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특수방수주

☎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

헬로tv

hello tv

디지털 방송의 모든 것이 자신있다
디지털 멀티플레이어,

- 국내 최대 220여 개 채널 보유
- 생생한 지역정보
- 볼거리가 풍부한 VOD 콘텐츠
- 클라우드 게임, 노래방, 쇼핑 등 편리한 부가기능
- 쉽고 편리한 이용법
- 2시간 만에 다시보는 지상파방송

▶ 헬로tv를 시청하는 방법 ▶
1. 헬로tv를 시청하는 방법 ▶
2. 헬로tv를 시청하는 방법 ▶
3. 헬로tv를 시청하는 방법 ▶

SAVE 최대 56%
1588-3450
디지털 방송은 헬로tv!

※ 위의 할인율은 기안 조건으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